

## 환경기술인 전문직업인으로 우뚝 연합회 20주년 맞아 천안상록리조트서 기념식 개최

전국 각처에서 산업현장의 환경관리 및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만 환경기술인들의 단체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장 이상호)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아 웅장한 기념식 및 '환경기술인 2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이재용 환경부장관, 배일도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영학 천안부시장 등 내외 귀빈과 환경기술인, 공무원,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의 발자취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회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온 과거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연합회 발전을 강조했다.

또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환경보전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고용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일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법 정비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높ی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보전유공자에게 환경부장관 표창 및 연합회장 감사패 및 공로패가 수여됐다. (주)LG화학 온산공장 윤상록 과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김의중 대리, 대승케미칼 하중호 대표는 지역사회 환경발전 및 환경관리, 그리고 환경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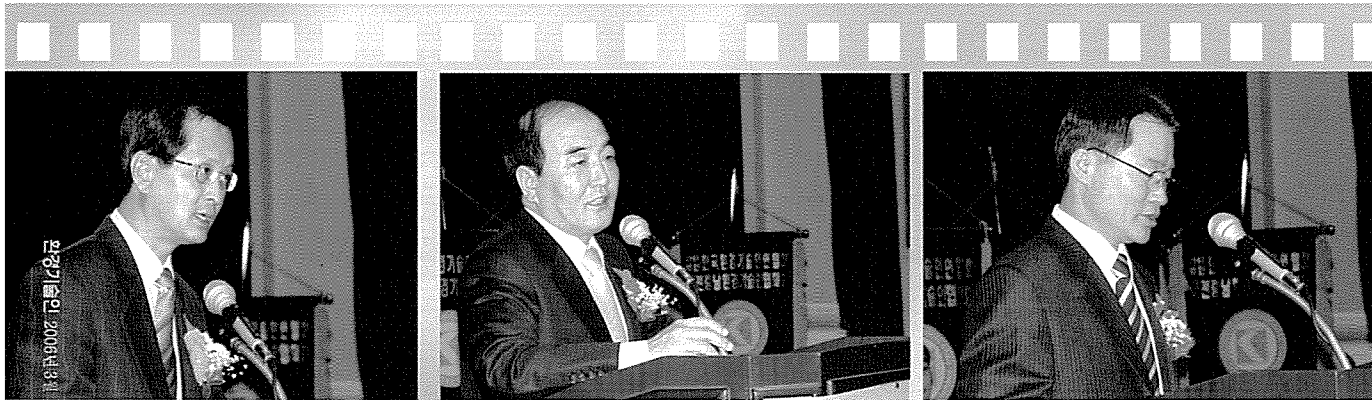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주)드림바이오스 과무영 대표이사, 동일화학 이선균 대표, 첨단유체산업 이회영 대표는 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또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김남환 영남권부회장은 연합회 창립 초기부터 20여년 동안 연합회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연합회의 단단한 조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공로패를 받았다.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환경기술인 연합회가 20주년을 맞이한 것은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환경기술인이 다함께 외친 다짐은 “환경기술인들이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처음 기술인 연합회가 창립선언을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강력한 실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전국의 환경기술인을 구성원으로 1986년 창립하여 전국에 19개 지부와 약 5만여 회원을 가진 단체로 환경기술의 지원 및 교류,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교육, 환경보전홍보활동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환경기술인들은 각종 제도적인 미비점, 기업에서의 직책에 대한 미흡한 배려, 과도한 책임 등,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기술인연합회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연합회는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하여 기술인들의 권익과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를 제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국회 및 언론 등을 설득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환경부 및 국회 등에서 환경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어 앞으로 기술인들이 보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장에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과 함께 환경기술인의 노래를 제창하며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기술인들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는 많은 주최들이 있으나 이 가운데 환경기술인은 사실상 현장에서 환경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핵심 역량이고, 이러한 환경관리의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환경기술을 선도하는 주도세력이며, 학계로의 진출 및 교류 등을 통하여 국가환경관리를 선도하는 그룹이다. 바로 이러한 역량의 결집과 힘을 보여준 것이 창립 20년을 맞은 환경기술인연합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보다 강력한 기술인들의 발전을 이끌 중심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장에 참여한 환경기술인들은 이러한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짐하면서 나아가 앞으로 연합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전국의 환경기술인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설 것을 각오하는 모습이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워크숍과 병행 실시하였으며, 총량제 관련 기자재 전시회도 함께 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하는 제 3차 수질오염총량제 포럼 및 워크숍에는 전국의 수질관련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총량제 현안사항 및 사안별 주제발표를 했으며, 연합회 회원들과의 교류 및 분임토의도 있었다.

〈환경부장관 표창장〉

(주)LG화학 온산공장 윤상록 과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김의중 대리, 대승케미칼 하중호 대표

〈연합회장 감사패〉

(주)드림바이오스 곽무영 대표이사, 동일화학 이선균 대표, 첨단유체산업 이희영 대표

〈공로패〉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김남환 영남권부회장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도움 주신 분〉

(축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염태영
국회의원	김근태
연합회 고문	이용근

(화환)

환경부장관	이재용
국회의원	권선택
환경일보 대표	이미화
한국대기환경학회장	김신도
한국바이오시스템(주) 대표	현문식
(주)쌍용건설	외 다수



▲ 환경기술인 현장 낭독 장면



▲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



▲ 이재용 환경부장관의 표창수여